



광주·전남이 처세대 먹거리로 첨단 하이테크산업과 그린산업 육성에 성공하고 있다. 산업의 융·복합화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발판 삼아 경제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포부다. 지난달 28일 광주·전남 북구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극초단 광양자빔 특수연구동에 구축된 '펄초 레이저 시스템'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레이저빔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미래는 첨단과학·그린

신묘년 새해 광주·전남의 목표는 첨단 하이테크(High tech) 산업과 그린(Green) 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다. 해방 이후 60여 년 동안 정치논리에 밀려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채 애를 태워왔던 광주·전남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개선된 기업여건을 발판삼아 새로운 '경제르네상스(Renaissance)'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부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광(光)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엔 마이크로 로봇과 플라스틱솔라셀, 펄초레이저, 터치패드, 클린디젤자동차 부품, 3D디스플레이, 적외선광학렌즈 등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광주시는 사업시작 11년 만에 연 매출액 2조 2000억원에 7300명을 고용하는 거대

■광주
마이크로 로봇
펄초레이저
터치 융합산업
플라스틱솔라셀

■전남
신재생에너지
슬로 라이프
생명식품산업
행복마을

산업으로 성장한 광산업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광통신과 LED분야에 집중했던 기존 첨단산업 분야를 다각화해 광주를 첨단하이테크 산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스마트폰과 관련해 각광을 받고 있는 터치센서 분야의 경우 원천기술을 보유한 솔렌시스(주)가 최근 첨단산단에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것을 계기 삼아, 터치센서 소재 및 부품 개발과 판매, 포장, 유통 관련업체가 한 곳에 집중된 '터치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적외선 광학렌즈를 비롯한 첨단제품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IMF이후 기술중속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단순 제조업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앞

으로 전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우위의 산업을 선점·육성해 지역 경제를 살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지난 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녹색성장정책을 올 한해 최우선 순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특히 전국 최대의 일사관과 빠른 풍속 등 타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인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 도내 곳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고 울돌목에 조류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신안에 발전용량 5GW규모의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100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완도 청산도, 장흥 유치·장평, 신안 증도, 담양 창평 등 4곳의 슬로시티(Slow city)를 명품 관광지로 집중 육성하고, 올 한

해 동안 20개의 행복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한옥 500동을 신축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생명식품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오는 2014년까지 1조6000억원을 들여 전남지역 전체 경지면적의 45%인 14만ha에 대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음으로써 세계 최고의 유기농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복안을 마련하는 등 웰빙·녹색산업 육성에 매진하기로 했다.

김종일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은 리아스식해안과 섬, 갯벌,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녹색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며 "전남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같은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최고의 이야기꾼 베르나르 베르베르 새해 인터뷰 ▶ 22면

“미래 관심 많은 한국민족 한반도 위기 잘 극복할 것”

상상력의 천재,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한국 독자들의 인기를 한껏 누리고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광주일보 애독자들에게 새해인사를 보내왔다.

베르베르는 연평도 사태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닥친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어느민족보다도 현실 타개능력이 뛰어나고 미래에 관심을 많이 갖는 한국민족은 이 위기를 거뜰히 극복해낼 것이라고 낙관했다. 베르베르는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왔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씨앗의 열매를 수확한다는 의미에서, 평화를 누릴 권리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구랍 21일과 23일 본보 정상필 객원기자(전 파리특파원)와 파리 현지에서 두차례 인터뷰를 한 베르베르는 조국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먼저 자신을 알아줬으며, 그래서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부르는게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파리 지택 서재에서 인터뷰중인 베르베르.

그는 또 인터뷰 후 한국의 남쪽 전라도 지방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며 특별히 광주일보 독자들의 새해를 축하했다. 그는 작은 서점에서 열리는 작가 사인회에 참석을 하고 아이폰을 애용하며 볼로뉴 숲에서 조깅

을 하고 동네 카페에 앉아 작품을 쓰거나 구상하는 등 세계적 유명세와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사내. 그의 프랑스 사회에 대한 비판들과 새 작품 구상을 들어보자. <문화부>

폭설 대란속 새해 맹추위

신묘년 새해 벽두부터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동장군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2면>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1~2일 광주와 전남·북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다”며 “1일 새벽까지 서해안지방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일 광주와 전남·북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곳곳에 빙판길이 도사리고 있어 이동시 주의해야 하겠다. 1일과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하 5도, 낮 최고기온도 영하 1도~영상 2도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30일과 31일 광주와 전남·북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됐으며, 서해안 지방에 당게는 20cm 이상 폭설이 내려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양수현기자 yang@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光州日報 임직원일동

휴일 날씨	31(금) 구름많고 눈 -5/1℃	1(토) 구름 많음 -6/-1℃	2(일) 구름 많음 -7/1℃
-------	--------------------------	-------------------------	------------------------

신년특집 지면 안내

사자성어로 본 신묘년... 3면	남도의 길... 14면
잠룡들 '대권 변주곡'... 4면	F1 올해는 잘 될까... 18면
총선 물갈이 얼마나... 5면	여수엑스포 준비 점검... 19면
광주 4대 첨단기술... 6면	신춘문예 당선작... 20·21면
그린 일번지 전남... 7면	IT 빅뱅... 26면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11면	프로야구 30년... 31면

신년호 오늘 발행... 1월1일·2일 신문 쉽니다

謹賀新年
신묘 새해를 맞이하여
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2011년, 희망을 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신묘년(辛卯年)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
삼성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준비합니다

